

SeMA 비엔날레 <미디어시티서울> 2016 프리비엔날레

열린출판회의

일시: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3시-5시

장소: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사무동 1층 회의실

패널: 응토네 에자베(치무렝가), 장문정, 미구엘 로페즈, 게이코 세이, 백지숙

모더레이터: 길예경

SeMA 비엔날레 <미디어시티서울> 2016 프리비엔날레

SeMA 비엔날레 <미디어시티서울> 2016은 2016년의 아홉 번째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프리비엔날레의 일환으로 비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, 비엔날레의 주제와 작품들이 전개되는 과정을 웹사이트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.

<미디어시티서울> 2016의 비정기 간행물은 세상을 떠도는 지식의 꼴을 포착해 비정형의 모습으로 오프라인 곳곳에서 유포될 예정입니다. 2016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걸쳐 다섯 명의 편집위원[응토네 에자베(치무렝가), 장문정, 길예경, 미구엘 로페즈, 게이코 세이]이 이미지와 글, 한국어와 영어로 된 네 호의 간행물을 만듭니다.

이와 함께 내년 비엔날레를 위한 생각과 마음의 기틀을 잡아가는 프로젝트 <더 빌리지>와 <불확실한 학교 앞에서 나눈 대화>는 각기 작가이자 기획자인 함양아와 최태윤이 진행하며, 그 과정은 <미디어시티서울> 2016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. 함양아는 창의적인 배움을 시도하는 세계 곳곳의 개인 또는 조직들과, 최태윤은 장애와 언러닝(unlearning)에 영감을 주는 작가들과 생각을 교환합니다.

또한 한국의 젊은 작가들과 <미디어시티서울> 2016 기획팀은 작품 또는 전시의 구상 과정에서 마주치는 웹 문서를 게시해 나가하고자 합니다. 이 책갈피 문서들은 작품/전시의 직접적인 계기이거나, 스쳐가는 인상이거나, 결과적으로 전혀 무관한 기억일 수 있습니다.

열린출판회의

2015년 11월 27일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열린출판회의는 <미디어시티서울> 2016의 비정기 간행물 출판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을 공개하는 행사입니다. 이는 <미디어시티서울> 2016의 간행물 편집위원 응토네 에자베(남아공. 치무렝가 편집장, DJ), 장문정(미국. 디자이너, 조지아대학교 그래픽디자인 조교수), 길예경(한국. 편집자, 번역자), 미구엘 로페즈(코스타리카. 작가, TEOR/éTica 큐레이터), 게이코 세이(태국. 저술가, 큐레이터, 교육자)의 기존 독립매체 출판 활동을 Q&A 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. 나아가 이들이 앞으로 간행물을 통해 전달할 세상을 떠도는 지식의 꼴을 유추하고, <미디어시티서울> 2016의 형태를 가늠해보고자 합니다.

참가신청

참가신청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<미디어시티서울> 2016 웹사이트 또는 서울시립미술관 웹사이트에서 예약 가능합니다. <미디어시티서울> 2016 웹사이트: www.mediacityseoul.kr → 뉴스 → 열린출판회의 예약 신청. 서울시립미술관 웹사이트: sema.seoul.go.kr → 공지사항 → 열린출판회의 예약 신청

SeMA 비엔날레 <미디어시티서울> 2016

전시: 2016년 9월 1일 - 11월 20일

주최: 서울시립미술관

<http://www.mediacityseoul.kr/>

SeMA 비엔날레 <미디어시티서울> 2016

작수 해마다 열리는 SeMA 비엔날레 <미디어시티서울>은 서울시의 대표적 미술행사이자 서울시립미술관의 "포스트뮤지엄" 미션을 구현하는 동시대 미술 축제로, 미디어아트를 비롯하여 미디어의 개념을 연장하는 다양한 양태의 예술에 주목합니다. 2000년 "미디어_시티서울"이라는 명칭으로 개막한 후, <미디어시티서울>은 미디어아트와 기술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모습을 반영하고 서울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확장해왔습니다. 올해로 십오 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비엔날레는 예술, 미디어, 기술에 새로운 전환점과 계기를 제공하고, 한국의 작가들을 알리는 동시에 국제 미술계와 대화하며, 예술과 문화를 향유하고 지지층을 넓혀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아홉 번째 SeMA 비엔날레 <미디어시티서울> 2016은 2016년 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열리며, 백지숙이 예술감독 겸 큐레이터를 맡았습니다.

SeMA 비엔날레 <미디어시티서울> 2016 예술감독

백지숙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열린 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(APAP) <퍼블릭 스토리>의 예술감독이었으며, 아뜰리에 에르메스 아티스틱 디렉터(2011-2014)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관장과 아르코미술관 인사미술공간의 프로젝트 디렉터를 역임했습니다(2005-2008).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큐레이터와 마로니에미술관 수석 큐레이터를 지내면서 <새로운 과거>(2004), <공원 심포 사람들>(2003), <신학철: 우리가 만든 거대한 상>(2003) 등을 기획했습니다. 2007년 뉴질랜드 뉴 플리머스의 고벳-브루스터 아트 갤러리의 <엑티베이팅 코리아>, 2006년 광주 비엔날레의 <마지막 장: 길을 찾아서_세계도시 다시 그리다>, 2005년 독일 쿤스트할레 다름슈타트의 <배틀 오브 비전스>를 공동 기획했고, 2002년에는 국제 대안공간 심포지엄 <도시의 지역, 공간의 역사>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.

보도자료 사진 다운로드: <https://goo.gl/FsCzj3>

문의: press@mediacityseoul.kr